



미지근한 KIA 스토브리그

'디펜딩 챔피언'에서 '8위'로 추락한 KIA가 조용한 12월을 보내고 있다. KIA는 아시아쿼터, 외국인 투수와 타자 그리고 조상우와의 FA 계약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선수단 미팅을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FA·외국인 선수·아시아쿼터 보강 속제…새 시즌 준비 지연

박찬호·최형우 이탈 이후 내야 전력 구성과 불펜 안정 과제



KIA 타이거즈가 고요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다.

KIA는 지난 겨울 KBO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운팀이었다. 'V12'를 완성하면서 우승 주역들은 각종 시상식 주인공으로 단상에 섰다. 2025시즌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박리거' 우완 아담 올러와 훈련 타자 패트릭 위즈덤도 영입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8위로 추락한 올 시즌 겨울은 고요하다.

가장 많은 6명이 FA 자격을 얻으면서 'FA'로 떠들썩한 11월은 보냈지만 각별 소식이 이어졌고, 각종 시상식에서는 구경꾼이 됐다.

그나마 11월 26일 제임스 네일의 재계약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졌고, 지난 4일 양현종의 FA 계약 발표도 있었지만 이후 KIA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올 시즌 부상 병동의 팀을 굳게 지켰던 박찬호와 최형우가 FA로 팀을 떠난 만큼 새 전력 구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수와 타자, 아시아쿼터, 조상우가 KIA의 큰 퍼즐 조각이다.

네일과의 재계약을 통해 한숨을 돌린 KIA는 외국인 선수 두 자리를 채워야 한다. 패트릭 위즈덤을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 KIA는 외국인 타자는 새 얼굴로 채우게 된다.

올 시즌 깜짝 스타가 된 오선우에게 1루수 역할을 주문한 KIA는 외야 자원을 물색하고 있다.

투수 한 자리는 올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부상 공백 속 외국인 선발로서의 강렬한 모습은 부족했지만 149이닝을 소화하면서 11승을 수확하는 등 KBO 데뷔 첫해 나쁘지 않은 기록을 작성했다. 네 일과도 좋은 호흡을 보여줬던 만큼 두 사람에게 '원 투 편지'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

아시아쿼터도 관심사다. 2026시즌 처음 도입되는 아시아쿼터를 두고 투수들의 계약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고 있다. 투수 영입 흐름과 달리 KIA는 팀 상황을 고려해 내야 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찬호가 두산으로 떠나면서 내야 신구격차가 커졌다. 내야 유망주는 있지만 풀타임을 소화한 중간 선수가 없다.

올 시즌 내야는 부상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역시 부상으로 고전한 김선빈의 수비 이닝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격력을 극대화해야 하고, 김도영도 올 시즌 무려 세 차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만큼 돌아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한다. 김선빈의 대체자로 힘입는 윤도현도 올 시즌에도 연달아 부상을 당하는 등 내야 변수가 많다.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하면 마무리캠프에서 직접 실력을 점검했던 호주 출신의 제러드 데일이 KIA의 첫 아시아쿼터 선수가 될 전망이다.

유일하게 남은 FA 조상우와의 계약은 진행형이다.

올 시즌 불펜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KIA 입장에서 조상우는 필요한 선수지만 FA 계약인 만큼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KIA는 '마당쇠' 장현식의 FA 이탈을 채우기 위해 올 시즌 트레이드를 통해 조상우를 영입했지만 기대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다.

부상 이후 매서움이 떨어졌고 불펜진의 동반 부진으로 전반기에는 제 몫을 하지 못했다. 시즌 막판 상승세는 보여줬지만 KIA가 과감한 배팅을 하기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있어 지루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안영규·하승운 고향서 2년 더 뛴다

안영규, K리그 통산 300경기·3년 연속 주장…하승운, 측면·중앙·수비 다재다능



하승운



안영규

'리빙 레전드' 안영규(36)가 광주FC에서 또 다른 무대를 펼친다.

광주FC는 16일 '안영규와 2년 연장 계약을 맺었다'고 재계약 소식을 전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안영규는 2026-2027시즌에도 고향팀 그라운드를 누비게 됐다.

광주 금호고 출신의 안영규는 팀의 상징적인 선수다.

2012년 수원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전을 거쳐 2015년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고향에서 33경기를 소화하면서 K리그1 잔류를 이끈 그는 군 복무를 위해 잠시 팀을 떠났다가 2017·2018시즌 광주에서 출전 기록을 쌓았다.

이후 성남에서 3시즌을 보낸 안영규는 2022년 광주로 복귀해 '주장 완장'을 차고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복귀 첫해 주장으로 팀을 이끌면서 K리그2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최다 승점 신기록에 기여했다. 이 해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된 그는 MVP로 평가받았다.

전남은 이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당하면서 6위로 추락, 준플레이오프행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2018시즌 최하위로 강등됐던 전남은 내년 시즌도 K리그2에서 보내게 됐다.

신인 사령탑을 맞은 전남은 송중진 대표이사 체제로 새판을 짠다.

16일부로 취임한 송종진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스코 경영전략실 팀장, 포스코 라이온스 법인장, 포스코 홍보기획그룹장, 포스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실장, 포스코홀딩스 정책 지원실장 등을 지낸 변화관리전문가다. 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여자탁구단 '스피너스' 단장으로 스포츠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7시즌부터 K리그1이 14개팀 체제가 되면서 최대 4개팀이 승격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즌'이 열린다. 새 사령탑을 앞세운 전남은 1차 등계 훈련 뒤 내년 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K리그1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성(30·사진) 영입을 주도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알렉스 앤소풀로스 단장이 '장기 계약 가능성'을 열어놨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는 16일 김하성과 1년 2000만달러(약 294억 원)에 계약했다.

앤소풀로스 단장은 "김하성과 1년 계약에 합의하기 전에 장기 계약 논의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하성에게 '이곳에서 멋진 한 해를 보내고, 네가 밭을 자격이 있는 좋은 조건의 계약을 떠나라'라고 인사했다"고 덧붙였다.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기간 4+1년, 보장 금액 2800만달러,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했다.

샌디에이고에서 4년(2021~2024년) 동안 김하성은 타율 0.242, OPS(출루율+장타율) 0.706, 52홈런, 84도루를 올렸다.

2023년에는 152경기 타율 0.260, 출루율 0.351, 장타율 0.398, 17홈런, 38도루를 기록하고, 내셔널리그 유일리티 부문 골드글러브도 수상했다.

하지만, FA 자격 획득을 앞둔 2024년 8월 어깨를 다쳐 두 달 후 수술한 뒷에 몸값이 떨어졌다. 2024시즌 종료 뒤 FA 시장에 나온 김하성은 텁파베이 레이스와 2년 최대 2900만달러에 계약했다.

템파베이는 올해 9월 2일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랜타가 김하성의 계약을 이어 받았다.



김하성, 반등할 선수 장기 계약도 가능해

애틀랜타와 1년 294억 원 계약

전남, 박동혁 감독 선임…K리그1 승격 재도전

승격 도전에 실패한 전남드래건즈가 '박동혁호'를 새로 출범시켰다.

K리그2 드래곤즈가 제17대 사령탑으로 중앙 수비로 맹활약했던 박동혁(46·사진) 감독을 선임했다.

박동혁 감독은 2002년 전북현대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울산HD로 이적 했다. 울산에서 3시즌을 보낸 그는 이후 갑바오사카·가시와레이솔(이상 일본), 다롄스터(중국)에서 해외리그를 경험했고, 2013년 울산으로 복귀한 뒤 2014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났다.

박동혁 감독은 프로에서 부동의 중앙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K리그 통산 244경기에 나와 22골 3도움을 기록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18경기에도 출전했다.

2015년 울산에서 스카우트와 코치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한 박동혁 감독은 2018년 K리그2 아산무궁화 지휘봉을 들었다. 39세에 감독 생활을 시작하는 그는 첫 해 K리그2 우승을 지휘하면서 감독상을 거머쥐었다.

2023-2024시즌에는 경남FC에서 감독을 맡는 등 그는 지도자로 통산 255경기(K리그2 238경기, 코리아컵 17경기)를 소화하면서 '젊은 사령탑'의 힘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유럽 연수를 통해 선진 축구를 경험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TSG(기술연구그룹) 위원으로서 K리그 전반적인 흐름도 살펴보면서 시야를 넓혔다.

명가재건의 선봉장을 다짐한 박동혁 감독은 "감독 인생을 걸고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 선수구성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훌륭한 공격자원이 많다. 원팀으로 승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뒷심 싸움'에서 밀려나 쉬운 시즌을 보낸 전남은 1년 만에 사령탑을 교체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전남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충남아산의 K리그2 준우승을 이끌었던 김현석 감독을 영입해 승격 도전에 나섰다.

'주장' 밸디비아를 앞세워 2위까지 올라서기도 했지만 시즌 막판 흐름이 아쉬웠다.

4위에서 충남아산을 상대로 시즌 최종전을 치른

김하성은 이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당하면서 6위로 추락, 준플레이오프행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2018시즌 최하위로 강등됐던 전남은 내년 시즌도 K리그2에서 보내게 됐다.

신인 사령탑을 맞은 전남은 송중진 대표이사 체제로 새판을 짠다.

16일부로 취임한 송종진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해 포스코 경영전략실 팀장, 포스

코리아 법인장, 포스코 홍보기획그룹장, 포스코

인터내셔널 커뮤니케이션실장, 포스코홀딩스 정책

지원실장 등을 지낸 변화관리전문가다. 그는 포스

코리아 인터내셔널에서 여자탁구단 '스피너스' 단장으로 스포츠팀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7시즌부터 K리그1이 14개팀 체제가 되면서

최대 4개팀이 승격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즌'이

열린다. 새 사령탑을 앞세운 전남은 1차 등계 훈련

뒤 내년 1월 10일 태국 방콕에서 K리그1 복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김하성은 텁파베이 레이스와 2년 최대 2900만

달러에 계약했다.

템파베이는 올해 9월 2일 김하성을 웨이버

공시했고, 애틀랜타가 김하성의 계약을 이어

받았다.

/연합뉴스